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위원회 김철현(국민의힘, 인양2위원장)이 20일 '경기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운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인사청문회 내용 언론 공개를”

## 김철현 경기도의회 의원 정책토론회서 쇠신 강조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경기도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위원회 김철현(국민의힘, 인양2)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운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서용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입법부가 행정부 수장의 인사를 검증하는 제도로서 견제와 균형의 정치적 도구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분립을 실질화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정치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함으로써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법률형·협약형·예규형 유형

으로 나뉘어 운영 중이라 언급했다.  
인사청문회는 협약에 근거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청문 대상에 강제력이 없고 △입기와 상관하는지 여부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며 제주도·서울시·경기도의회와 세부적으로 비교했다. 이에 △법적 근거와 구속력 △주관 위원회와 참여자 구성 여부 등 여러 각종 쟁점에 대해서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강응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위원회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전문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 많은 출연기관과 공사가 존재하나 2년만 근무하는 등 민간하게 운영된다며 관련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과거 협의 내용을 현재 지켜야 할 이유가 부족하듯처럼,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므로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순중 서울시의회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은 지방

의회 인사청문회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최초 시도됐으며,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 운영 중이며, 기초자치단체에서 확산 중이라며 밝혔다. 이에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의회 사후 검증과 광명시의회의 사전 검증 형태로 도입 유형이 나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여러 한계가 있으므로, △인사청문회 후 동의를 요구하는 직위와 인사청문회로 끝나는 직위 구분 방안 마련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기관 구성 다양화로 기관대립형의 구조를 타파 및 다른 형태로 발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출연기관·지방공기업 관련 인사청문회법을 반대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조성수 강남구의회 행정재정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은 지방의회는 전문위원이 아닌 개별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며, 경기도의회는 양당 합당성에 기반해 타당성과 명분을 중시하므로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

다고 언급했다. 이에 결과보고서는 편향적으로 작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별 위원들의 논의가 최종 조율돼 내용 수정 없이 결정해 도지사에게 보내는 과정을 통해 의미가 있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진정한 전문성과 자질을 보여주기 위해 지방 언론과 함께해 청문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선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는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 평가하는 기준도 높아졌다고 제안했다. 이에 시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중요한데, 아직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므로 보안을 통해 후보자가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김철현 위원장은 “경기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해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경기도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김인창 기자

## 의회 단신

###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위원회 조례 통과

####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하남시의회 정혜영(민주당, 가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가 주최하는 문화행사 중 5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거나, 1회당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사후평가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총 10인의 위원으로 (부)위원장·당연직위원을 제외한 7인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학계 전문교수 △문화예술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임원 △그 밖에 문화행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돼, 앞으로는 하남시민과 전문가의 목소리가 하남시의 각종 문화행사의 구성 및 내용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하남시가 연이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 33만의 중견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행사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하남시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할 경우 개최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사후평가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총 10인의 위원으로 (부)위원장·당연직위원을 제외한 7인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학계 전문교수 △문화예술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임원(眞) 수준 향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하남시를 ‘문화도시 하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학모 기자

### “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 대형 컨벤션 건립”

#### 최훈 인천 동구의회 의원

인천 동구의회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이 의정 자유발언에서 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 대형 컨벤션 건립을 제안했다.  
20일 동구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정 자유발언에 나선 최훈 위원장은 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 조성 예정인 복합건축물의 설계변경을 통해 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형 컨벤션 건립을 제안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동구 지역에 대형 컨벤션이 없어 대규모 행사 진행 시 타지

역의 호텔·컨벤션 시설을 기웃거리야 하는 상황이며, 쇼펍·레저 등 판매 소비 인프라가 부족해 동구의 신용카드 역의 소비율이 66.09%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낮은 인구수와 높은 비율의 고령 인구증가로 인해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소비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2023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실시설계 추진을 앞두고 있는 만석화수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해 창의 넓은 대형 컨벤션 건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 김대영 인천시의회 의원

이태원 참사 등으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40명 전체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열린 제283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대영 의원은 지난 283회 인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연내 통과되도록 제안했고, 전체위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발언했다.  
그동안 옥외행사에 대한 어떠한 안전관리 조례가 없었던 인천시는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모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특히 본 조례를 통해 옥외행사 안전관리와 관련해 재난기분 및 공연법에서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안중삼 기자

## 항만 재개발 관련 정책 세미나 개최

### 인천시의회 항만 재개발 특위 수리조선 산업 발전 방안 마련

인천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는 20일 선박수리조선단지 입지 검토에 대한 용역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인천 내항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월미 전망대를 둘러 본 후,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세미나에 앞서 인천시 선박수리조선 단지의 현황 및 문제점과



인천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는 인천 내항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월미 전망대를 둘러 본 후,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인천시의회)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를 받고, 인천시 미래 먹거리의 한 축이 될 선박수리조선의 거점단지 조성의 필요

성에 공감하며, 소음·진동·먼지·악취 등 인근 주거지역의 민원 발생 사례를 참고해 친환경 수리조선 산업으로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를 당부했다.  
정우섭 해양특별과과장과 박창호 세한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민선 8기 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 르네상스 구상과 관련된 내항 재개발과 원도심 재생의 방향, 해양관리의 주권 회복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지고 과제와 대책을 논의했다.  
안중삼 기자

www.designdaejin.co.kr

도시출판 수목원가는길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늘 처음느낌처럼 진정한 책을 만났을 때  
그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 같다.

感

처/음/느/낌

도시출판 수목원 가는길

Design DAEJIN 디자인대진 | DESIGN M 디자인엠 | 포천인쇄 | 삼원기획 | 아이엔피

www.designdaejin.co.kr  
T. 031.541.1070 M. 1577-1056@hanmail.net